



16면

군산시, 민선8기 출범 100일 맞아

전주매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음 9월 23일) 제31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방식 전액 국가재정으로 추진을”

민주 김수홍 의원, 국회 국토위 국감서 촉구

“그동안 공항건설, 일관되게 전액 국비 추진

무안 등과는 다르게 공항공사가 투자 참여”

사업비 부담해도 현행법상 시설은 국가에 귀속

자율적 서비스 개선 불가능... 운영 활성화 차질



회된 상황에서 향후 8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한다.

로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돼 한국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항 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수홍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추진과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개항 후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 없이 전액 국가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전북인산시장·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성 없는 공항 건설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전액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수홍 의원은 정부의 공항 추진방식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공항건설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특히 올 6월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된 새만금국제

공항의 재원조달방식에서 국토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며 “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을 해 건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참여를 허용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민약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의 약 20%를 부담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코로나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약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가 1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 미래교육의 방향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현안보고서 발간

가장 필요한 인간상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 꼽아
내달 초 교육정책 포럼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전북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제언하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주체별 인식 조사를 통한 ‘전북 미래교육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주요 교육기관의 미래교육 동향과 정책적 의제에 대해 살펴보고, 전북 14개 지역의 초·중·고 42교를 포함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전북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래사회의 요인으로 학생과 교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를 1순위로, 학부모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첨단기술 발전’을 1순위로 각각 인식했다.

또 미래교육의 지원점과 가치를 순위별로 답하는 문항에 대해 전북 학생, 교원, 학부모는 공통으로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를 1위로 선택했다. 특히 전북 미래교육에 가장 필요

한 인간상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더불어 사는 사람’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소통 능력 함양 △전북 미래역량의 토대인 ‘기초·기본 학력’ 신장에 주력 △인성교육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융합적 미래 교육환경 구축 △과밀 학교 해소와 ‘지역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한숙경 소장은 “교육감 공약 이행과 전북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실천 정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도교육청 각 부서를 비롯해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과 공유해 전북미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현안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초 전북미래교육 미래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모색을 주제로 ‘전북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핸드볼 메카 정읍’ 명성 되찾나

시, 실업팀 창단에 ‘긍정적 이학수 시장, 정강선 회장과 면담서 필요성 ‘공감대’

정읍시가 핸드볼팀 창단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추후 실업팀 창단이라는 전북 체육계에 단비 같은 소식에 전례없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이학수 정읍시장과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실업팀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여자 핸드볼팀 창단 관련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거 정읍시는 2008년 핸드볼팀을 창단, 운영했지만 불과 몇 년만인 2010년 각종 이유로 해체돼 체육인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런 상황 속 최근 들어 창단에 급물살을 타는 것은 평소 체육에 대한 애정이 높은 이학수 시장과 실업팀 창

단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정강선 회장의 뜻이 한 데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시장은 평소 체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과 효과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실업팀이 없어 지역 체육인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정읍시는 핸드볼의 메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읍시의 경우 전통 핸드볼 강호인 정읍서초와 정일중(전 정일여중), 정읍여고 등 초·중·고·대 연계되는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정읍여고는 올해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었던 임오경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무수히 많은 선수들을 배출 한 지역이기도 하다.

여자 핸드볼팀이 창단되면 학교 운동부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진로 문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외 핸드볼 대회 및 각종 대회를 정읍시에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88서울올림픽 여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임미경 전북체육회 부회장은 “핸드볼팀이 창단되면 전북 핸드볼의 자신감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학생 선수들은 졸업 후 갈 곳이 있어 든든한 미래가 생기고 선수 수급도 원활해진다”며 “체육 인프라 구축도 탄탄해질 것이며 실업팀이 많이 생기면 전북체육도 강해지는만큼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팀 창단을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와 진안군 순창군 등 자치단체에서도 실업팀 창단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경수 기자·정읍=김대환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진안농협하니로마트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농산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품·정량 안전제품 공급 유통기한 보장제

신속하고 친절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정육, 야채, 과일, 수산 (도, 소매) 전주방면
쌀, 잡곡, 베이커리 생활용품 일체 진안터미널 마이와라 무주방면
곧게방법: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진안농협 하니로마트
배달신청: (063) 433-1022 진안시외버스 터미널 장수방면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진안농협하니로마트 운영시간 오전 08:30 ~ 저녁 09:00
대표전화 (063) 433-1022 정육코너 (063) 430-3655 수산코너 (063) 430-3656 베이커리 (063) 430-3658

everyday Fresh day

진안농협하니로마트